

전 세계 전력망 투자 50% 확대… 전선업계 실적 승승장구

〈2030년까지〉

북미·유럽, 초고압·해저케이블 발주
기술 난도에 사업수행 기업 제한적
LS전선·대한전선 수주 확대 흐름

전 세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선업계의 사업 환경이 한층 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외 전력망 교체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면서 초고압·해저케이블 중심의 수주가 늘어나 실적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연간 4000억달러 수준인 전력망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약 50%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배전망 보강과 신규 설비 확충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S전선 직원이 구미 공장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테스트하고 있다.

/LS전선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충 움직임은 국내 전선업계의 수주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발주가 증가하면서 사업 무게중심이 내수에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특히 초고압·해저케이블 분야는 기술 난도가 높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돼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초고압 케이블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는 핵심 설비로, 고전압을 견딜 수 있는 절연 기술과 정교한 열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대형 생산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저케이블 시장도 해상풍력 확대와 국가 간 전력망 연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저 지형과 수심, 해류 조건을 반영한 설계 역량은 물

론 운송·포설·접속·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역량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은 계약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어 수주 이후 수년에 걸쳐 매출이 분산 반영된다. 장기 수주 물량이 누적될수록 향후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LS전선은 매출 7조 5000억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증가했다. 대한전선은 매출 3조 6000억원을 웃돌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는 대한전선이 3조원을 넘어섰고, LS전선은 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형 송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11조원대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규모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단위 인프라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전압 해저케이블 생산 능력과 장거리 해저 시공 경험, 계통 안정성 확보 역량이 요구된다.

LS전선은 생산과 시공을 아우르는 HVDC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LS그룹의 해저케이블 시공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은 신규 포설선을 투입해 국내 전략 사업과 유럽·북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전선도 포설선 투자와 함께 HVDC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을 종합 준공해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될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 중이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을 착공했다. 2공장에는 640kV급 HVDC와 400kV급 HVA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며 2027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확충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 능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협상력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국제유가 안정 속 휘발유 '약세' 경유 '강세'

국제 휘발유 평균가 전월비 5.8% ↓
전기차 확산 따른 수요 둔화 압력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사실상 보험
산업 전반서 사용… 감소폭 제한적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시스

균가는 배럴당 71.44달러로 전월(75.82달러) 대비 5.8% 하락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0.001%) 평균가는 82.40달러로 전월(82.39달러) 대비 사실상 보합(0.0% 내외)이었다.

이 같은 가격 흐름은 제품별 수요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휘발유는 승용차 연료 비중이 높아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압력을 받는 반면, 경유는 화물·건설·발전·선박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필수 연료로 수요 감소 폭이 제한적인 구조다.

글로벌 원자재·에너지 시장 분석기관인 StoneX는 여기에 더해 정유 설비 폐쇄로 중간유분 생산 능력이 줄어든 점을 경유 강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

유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제 단계의 공급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려 경유 시장의 수급 부담이 먼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1월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의 흐름이 같았다. 국제 제품가격은 통상 1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출하가는 정제마진과 환율 등 복합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SK에너지 기준 보통휘발유 공급가는 1월 1주 리터당 1611.83원에서 4주 1618.83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자동차용 경유는 1459.21원에서 1520.77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GS칼텍스도 휘발유는 제한적 변동에 머문 반면 경유는 1423.63원에서 1480.75원으로 올랐다.

정유사 출하가와 주유소 판매가에는 통상 2~3주 시차가 있다. 경쟁·재고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 흐름이 엇갈리기도 한다. 오피넷 집계(2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87.9원으로 2.7원, 경유는 1581.8원으로 2.0원 각각 내렸

다. 다만 최근 3~4주 연속 오른 국제 경유 가격이 출하가에 반영되면서, 재고 소진 이후 주유소가격도 시차를 두고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설 연휴 전후 소비 증가도 반영 속도를 앞당길 변수로 꼽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유가가 국제유가와 따로 계속 오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유제품 가격은 원유 가격을 바탕으로 정제마진이 형성되는 구조여서, 원유시장이 공급 우위면 휘발유·경유 모두 가격 레벨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약 300만 배럴 웃도는 공급과잉이 이어질 경우 전반적 가격 흐름이 우하향할 수 있다고 봤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학과 교수는 "전기차 확산으로 승용차 중심의 휘발유 수요는 둔화하는 반면, 경유는 중장비나 대형 차량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돼 수요 구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첨단의료기기에 7년간 9408억 투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올해 593억 투입, 106개 과제 선정

정부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로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2026년~2032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9408억원으로, 국비 8383억원과 민간 1025억원이 투입된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가 각

각 2972억원(국비 2649억원, 민자 323억원)을 분담하고, 식약처는 490억원(국비 435억원, 민자 5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등 3개 축으로 추진된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해인 올해는 국비 593억원을 투입해 총 10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분야별로는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5개, 코어기술·제품개발 68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33개다.

글로벌 플래그십 분야는 의료현장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이 가능한 '게임체인저 의료기기' 개발이 목표다. 코어기술·제품개발 분야는 미래 유망 시장 대응과 보건안보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임상연구와 규제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 병목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진단·치료)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6대 미래 유망 분야를 전략 육성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를 추진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의료기기 9건을 개발하는 등 의료현장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성과 목표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9%'로 상향

건설투자 전망치 1.7%p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1%포인트(p) 올렸다.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따른 상향 조정이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회복세가 미미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KDI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1.8%) 대비 0.1%p 상향한 수치로, 이는 2025년도 성장률 1.0%(추정)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7%로

전망했다. 정규월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이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체 수출 하방 흐름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건설투자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9.9% 급감의 기저는 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추산이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1.7%p 낮춰 잡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